

新安 地域의 堂山祭

은 상 오
(향토사 연구 위원)

동제는 당산제(堂山祭), 산신제(山神祭), 산제(山祭)라는 여러 명칭으로 불리는데 제의(祭儀)는 부락 신이 마을을 보호해 준다고 믿는 데부터 비롯된 민간 신앙으로 매년 음력 정월에 제의가 행해진다.

이 때는 모든 부락민이 부락 신에게 풍요와 안녕을 빌고 각종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해 줄 것을 함께 기원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이 일상 생활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얻고,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 확인과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해 주는 역할을 아울러 해 주고 있다.

제의(祭儀) 과정에서는 부락민 전체의 평안을 기원하는 만큼 신성함이 중시된다.

이 신성함은 곧바로 정결(淨潔)과 직결된다.

때문에 동제(洞祭)가 시행될 무렵부터 마을에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들을 놓고 이들의 정(淨)과 부정(不淨)을 구분하고 정(淨)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여러 행위와 금기들이 정교하게 깔린다.

이 동제는 대부분 상당제와 하당제의 이중 구조로 구성되는데 하당제(下堂祭)는 갯祭, 독祭, 龍王祭, 豐漁祭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부락제는 종교의 다양화, 미신의 천시 등 시대의 여러 변화에 의하여 대

부분 축소되거나 소멸되어 민중의 정신적 저주가 사라져 가는 안타까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이다.

점차 사회가 변화하면서 그 기능이 대폭 축소되거나 소멸되어 가는 민간 신앙의 모든 분야를 더 이상 사라지기 전에 기록화 하여 자료로서 보존하고, 향후 전통 문화의 계승에 도움을 준다는 점과, 현재 잔존하고 있는 민간 신앙 모든 분야의 총체적인 생활양식을 한편의 글로 작성할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의의(意義)를 두고 1987년 목포 대학교에서 국립 민속 박물관장 이종철(李鍾哲) 씨와 인류학 조경만(趙慶萬) 교수가 팀장으로 조사했던 자료를 요약한다.

□ 曾島面 長庫마을 山神祭(堂山祭)

매년 음력 정월 보름에 거행되는 이 마을의 洞祭는 '山神祭' 혹은 '堂山祭'라고 불리며(이하 산신제로 표기) 祭神은 '山神할머니'라 불리는 女神이다.

만약에 祭日인 정월 보름 전에 마을 주민 중 누군가가 産苦나 喪을 당했을 경우, 이에 따르는 不淨을 막기 위해 다시 擇日을 한다.

祭日은 老松이 우거진 마을 뒷산 山麓 밑에 위치해 있다.

높이 1m, 가로 341cm, 세로 361cm의 돌담이 사면에 둘러쳐 있고, 그 안에 돌로 쌓은 祭壇이 있다.

山神祭를 진행하는 祭官은 祭를 주관하는 祭主 1명과 보조역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祭日 며칠 전에 마을에서 漢學 등의 학식이 높고 덕망이 있는 年長者가 선정된다.

祭官 선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은 生氣 福德이 맞고 不淨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가정에 喪이 없고, 가족원 중 임신한 사람이 없으며, 개고기, 닭고기, 오리 고기 따위의 추하다고 여겨지는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不淨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祭官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그날부터 外地로 出他해서는 안되며, 다른 사람들이 그의 집에 출입해서도 안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山神할머니가 노해서 크게 화를 입힌다 한다.

이 마을 주민들은 祭官이 근신을 하며 祭日을 기다릴 때, 또 혹은 祭를 지내면서 정성을 제대로 쏟지 않으면 山神할머니가 노한다는 내용의 다양한 경험 사례들을 갖고 있다.

일주일 전 3명의 祭官들은 祭場 근처에 있는 당샘을 깨끗이 청소한 후, 祭主의 집에 따로 망을 마련하여 祭日까지 여기에서 함께 기거한다.

이 집과 祭場, 당샘에는 금줄이 쳐진다.

이곳이 神聖한 곳임을 알리고 不淨한 雜人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근래에는 山神祭에 드는 비용을 戶當 일정액을 거출하여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성 여부에 따라 仙王神이 福이나 재앙을 내려 정성껏 祭를 지내면 세관의 꿈에 女神이 나타나고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잡신들이 꿈에 나타나는 등 불길한 징조가 보인다.”

기본적으로 매년 5~6만원의 祭費用이 소요되는데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洞祭돈’이라는 명목으로 대략 戶當 1,000원씩 거출한다.

현금 대신에 쌀을 내는 가구도 있는데, 이 쌀은 祭祝에 祭需로 사용된다.

2명의 주민이 집집마다 다니며 이 현금과 쌀을 걷는다.

모든 현금과 쌀을 갖고 神聖한 祭主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 역시 不淨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이 때 많은 금액을 마을에 회사하는 사람도 있어 실제 모여지는 금액은 해마다 일정치 않다.

제관들은 돼지 머리, 酒, 果, 脯, 조기를 비롯한 해물 등의 제물을 장만한다.

祭物로는 과거에는 淸酒를 빚어 사용했다 하나 지금은 소주를 구입하여 사용한다.

祭官들은 祭物의 조리 등 祭를 지내기 위한 온갖 준비를 祭主집에서 한다.

제물 장만 시 식수는 당샘 물을 사용한다.

보름날 자정부터 祭가 거행된다.

陳設, 焚香, 再拜, 讀祝, 燒紙, 飲福의 順이다.

□ 飛禽面 內村마을 堂祭, 거릿제

內村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흘날 자정부터 정월 보름날 새벽 2시경까지 堂

祭의 祭神은 마을 뒷산의 이름과 같은 선왕신(서낭신)이다.

선왕신에게 마을에 豐農과 평안, 객지에 나간 사람의 無事故 등의 기원이 행해진다.

仙王神의 영험함은, 祭堂의 정성 여부에 따라 仙王神이 福 혹은 재앙을 내려 준다는 주민들의 생각이나, 정성껏 제를 지내면 제관의 꿈에 女神이 나타나고 잘못 지내면 엉뚱하게 잡신들이 나타나 이상한 징조를 보인다는 이야기 등에서 엿볼 수 있다.

한편 거리제는 당제 이후에 임자 없이 떠도는 雜神들을 달래기 위한 祭儀이다.

祭官과 貨主는 정월 열 이튿날부터 祭場에 올라 3일간 근신을 하면서 童子像 앞과 당집, 당샘을 깨끗이 청소한다.

그 후 이들은 당샘에서 목욕 재계하고, 동이에 물을 떠다 童子像을 목욕시키며, 3일 동안 아침마다 淸水를 떠다 그 앞에 바친다.

또한 당샘과 祭場입구, 당집, 마을의 祭官집에까지 금줄을 쳐서 雜人의 출입을 통제한다.

祭官이 祭場에서 근신한 동안 그의 부인은 자기 집 마당에 짚을 깔고 그 위에 정화수를 담은 물동이를 갖다 놓는다.

祭場에 올라간 祭官이 일을 원만하고 무사하게 수행하도록 祈願하는 것이다.

정월 열 나흘날 祭官과 貨主는 당샘에서 물을 길어다 祭物을 조리한다.

祭物은 메, 과실, 산채, 콩나물, 쇠고기, 시루떡, 송어, 낙지, 건명태 등이다.

조리를 할 때 간장 이외의 양념은 일체 넣지 않는다.

한편 거리제용으로 범벅 떡도 만들어 준다.

제물의 陳設이 끝난 후, 祭官은 모욕 재계를 하고 한복으로 갈아입는다.

堂祭는 祭場 아래에서 농악꾼이 치는 걸궁 소리와 함께 시작된다.

焚香, 降神, 讀祝, 初獻, 亞獻, 終獻, 添盞, 侑飲, 辭神, 燒紙의 順이다.

獻食에서 일부의 음식은 뿌리고 일부는 땅속에 묻는다.

대략 2시간 가량 걸려 거리제가 끝나고 이어서 걸궁(마당 밟기)이 벌어진다.

제관, 이장, 마을 유지의 집, 일반 가정의 順으로 농악꾼의 방문이 행해진다.

□ 黑山面 比里 마을 堂祭

比里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초사흘날까지 3일간 堂山에서 堂祭를 지낸다.

祭場인 堂山은 마을 북쪽 산중턱에 있는데, 주민들은 제를 지내는 곳을 上堂,

祭主가 거주하는 곳을 下堂이라고 부르고 있다.

上堂, 下堂 모두 기와의 맞지붕에 블록으로 벽을 쌓은 단칸집이다.

下堂에는 祭器室이 있고, 그 안에 술, 절구 등이 보관되어 있다.

당샘은 堂山에서 약 30m 떨어진 바닷가 海岩 근처에 있다.

당샘은 일반 주민에게 祭期間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워낙 물이 시원하고 맛이 좋아 일부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샘덮개를 덮어 함부로 사용치 못하게 하고 있다.

堂神은 堂영감과 할머니 夫婦이다.

上堂 內에는 堂神이 畫像이 있고, 韓紙로 만든 紙錢이 걸려 있다.

‘당거리’라고 불리는 이 紙錢은 堂神의 神體로 알려져 있다.

주민들은 堂을 매우 神聖視하여 함부로 접근하지 않으며, 특히 마을에 喪이나 産苦가 있을 때 堂집의 문을 열면 벌을 받는다는 俗信을 갖고 있다.

또한 이 마을 주민들이 堂祭가 진행되는 期間을 神聖視하는 관념도 여타의 마을 보다 훨씬 강하다.

우선 祭日에 마을에 喪, 出産이 있으면 그 해의 祭를 포기한다.

堂祭를 연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일단 不淨을 타면 아무리 연기해도 한겨울에 당샘에 벌레, 뱀 등의 흉물이 나타나는 등 반드시 상서롭지 못한 징조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어딘가 잘못이 있으며, 마을에 쥐가 들끓어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쉽사리 堂祭에 잘못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까다롭고 神聖하게 지내는 比里 堂祭는 祭日 3일 前에 祭官들은 堂祭에 쓸 火木을 마련하며, 주민들은 당에 올라가 당집과 당샘을 깨끗이 청소하고 금줄을 친 후 내려온다.

그 후 주민들은 일체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고 祭日까지 조용히 지낸다.

나아가 祭日에는 堂근처에 배도 지나갈 수 없다 한다.

祭官들이 下堂에 올라 메, 떡, 산채를 준비하되 이 때 고기와 술은 절대로 마련하지 않는다고 한다.

정월 초하루 자정부터 새벽 3시경까지 祭가 진행된다.

設末, 再拜, 口祝, 燒紙, 獻食의 順이다.

燒紙 절차에서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燒紙를 올리는데 종이기가 올라가는 상태에 따라 그 집 한 해의 運勢가 좋고 안 좋은 것이 결정된다.

祭官은 燒紙가 제대로 오르지 않은 가정에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면 낙심하기 때문에 燒紙 결과를 일체 말하지 않는다.

獻食은 제물을 제장 주위 5~6군데에 묻는 절차이다.

堂祭를 끝내고, 祭官은 촛불을 흔들며 마을에 제가 끝났음을 알린다.

이를 본 마을 주민들은 농악대와 함께 굿을 울리며, 堂에 올랐다가 祭官들을 데리고 마을로 내려온다.

이어서 주민들은 마을 회관에서 남은 제물을 먹으면서 굿을 치고 즐긴다.

남은 祭物을 祭官에게 모두 주는 경우도 있다.

□ 新衣面 모롱마을 堂祭. 거리제

新衣面에서는 매년 정월 초사흘날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약 5시간 동안 마을의 평안과 除厄을 비는 上堂祭, 下堂祭와 거리제가 행해진다.

祭神은 上堂祭의 경우 당할아버지(一名 大師)이고, 下堂祭는 당할머니(보살님), 거리제는 마을의 雜神이다.

上堂은 마을 뒷산 중턱에 있으며, '堂山'이라 한다.

上堂에는 소나무와 활엽수림이 우거진 곳에 큰 암석이 있어 그 양쪽에 자연석 돌담이 둘러쳐져 있다.

내부에는 上, 下 1cm 간격을 둔 2개의 石壇이 나란히 놓여 있다.

下堂은 상당에서 동쪽으로 20m 떨어져 있는데 人工의 건조물은 없고 樹林으로만 되어 있다.

거리제 때의 제장은 마을 앞 路邊 '방천'이라는 곳이다.

祭日 5일 전에 이 마을에 사는 점쟁이가 生氣 福德을 맞춰 祭官 2명을 선정한다.

“祭主의 집에는 왼 세기를 꼬아 만든 금줄을 치고 대문 밖에 황토흙을 뿌려 잡신의 접근을 금하고, 각별히 정결에 힘 쓴다.

만약 祭主나 그 가족이 상해로 피를 흘리거나 죽은 뱀이나 평을 보면 심한 부정을 댔다하여 그 해에는 祭를 포기한다.”

점쟁이는 生氣 福德 외에 出産, 喪 등의 不淨을 고려한다.

祭官 2명 중 1명은 祭를 주관하는 祭主이고, 1명은 그의 보좌 역이다.

이들은 선달 그믐날부터 집안을 깨끗이하고 産苦가 있는 집의 출입은 삼가하며, 대소변 시는 꼭 목욕재계를 하면서 온갖 정성을 기울인다.

祭前까지는 雜人과 대화에서도 안되며, 혹 雜人을 접할 경우 不淨의 오염을 막기 위해 고개를 숙여 마주치지 말아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세 벌의 옷을 깨끗이 빨아 준비해 둔다.

만약 제관들이나 그 가족 중 누군가가 傷害로 피를 흘린다든지 죽은 뱀이나 땀을 보게 되면 심한 不淨을 탄 것으로 여겨서 그 해의 祭를 포기한다.

사람들은 不淨을 닦음에도 불구하고 祭를 지내면 마을에 큰 화가 비친다고 생각한다.

제관들은 정월 초이튿날 이른 아침 堂山에 올라 上堂과 下堂을 청소하고 내려와 祭主집을 깨끗이 청소한다.

祭主집에는 왼 새끼를 고아 만든 금줄을 치고 대문밖에 황토를 뿌린다.

이때부터 祭主만이 남고 그의 가족들은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하며, 금줄을 경계로 雜人의 출입이 금지된다.

한편 마을 샘도 깨끗이 청소한 후 거적으로 덮어 놓는다.

일단 거적으로 덮이게 되면 아무도 이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마을 샘을 깨끗이 했는데도 물에 오물이 생기면 祭主는 정성이 부족한 탓이라 여기고 목욕 재계를 하고 다시 청소한 후 깨끗한 거적으로 덮어둔다.

여러 번 당샘 청소를 해도 물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마을에 不淨한 것이 있거나 정성이 부족해 당할아버지와 당할머니가 祭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堂祭를 지내지 않는다.

초이튿날 밤 11시가 되면 제주는 등불을 켜고 향불을 피운다.

그리고 나서 마을로 내려가 준비된 제물을 上堂으로 가져온다.

上堂祭는 陳設, 再拜, 獻酌, 口祝, 燒紙의 順으로 진행된다.

취나물, 고사리 나물, 녹두 나물, 도라지, 정화수가 陳設되는데 메는 밥술에 놓는다.

口祝에서는 '아무개가 제상 모시니까 잘 잡수시고 동네 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원한다.

燒紙에서는 祭主, 이장, 마을 유지, 각 가정의 順으로 올린다.

이 때 燒紙가 하늘로 올라가면 한 해의 운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매사에 조심해야 그 해를 무사히 넘긴다 한다.

上堂祭가 끝나면 제관은 진설된 음식을 그대로 두고 마을로 내려와 下堂祭의 매밥을 지어서 下堂에 오른다.

下堂祭는 상당제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며, 제물은 메, 편, 정화수, 취나물, 도라지, 녹두, 고사리, 명태, 쇠고기 등으로 肉類까지 陳設된다.

祭主가 일단 祭場으로 가면 祭主집의 금줄이 거두어지고 사람들의 출입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堂祭가 거행되는 동안 부인은 집으로 돌아와 거리제 때 陳設할 밥, 들복국 등을 준비한다.

下堂祭가 끝나면 祭主는 陳設했던 음식을 모두 거두어서 거리 제장으로 내려온다.

거리제에서는 마람 한 장을 펴고 새로 마련한 밥과 들복국, 당제 때 마련해 두었던 명태, 떡 등을 차려 놓고 마을의 雜神을 위로하는 祭를 지낸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리제는 단골이 祭를 주관했다.

長山面 幕旣마을 堂祭

幕旣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초吉日을 택해 마을의 平安과 祭厄을 기원하는 堂祭를 지내고 있다.

祭神은 山神과 당산할아버지, 당산할머니이며, 祭場은 마을 동남쪽 산봉우리의 '堂山'에 있다.

堂山인 祭場은 오래된 활엽수림으로 둘러져 있고, 그 내부에는 上, 下 140cm의 간격을 둔 2개의 石壇이 있다.

이 石壇 중 맨위에 있는 것은 山神의 壇이며, 아래에 있는 것은 당산할아버지, 당산할머니의 壇이다.

현재까지 과거에 주민들은 堂山에 대해 상당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옛부터 당이 매우 영험해서 堂山의 나무를 베어 연료로 쓰면 크게 동티가 난다고 믿고, 실제로 주민들은 堂山에서의 벌목을 지금까지 삼가해 오고 있다.

또한 주민 중 입대하는 자는 반드시 당산을 향해 재배하고 마을을 떠난다고 한다.

祭官은 生氣 福德이 좋은 자를 골라 2名을 선정한다.

이렇게 祭主가 선정되면 이들은 그날부터 祭日까지 모든 행동을 조심하고 정성을 드려야 한다.

이러한 규칙과 금기는 매우 까다로워 서로 祭官 맡기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일단 祭主로 선정되면 이를 자신의 運으로 여기고 온갖 정성을 다 한다.

祭官이 준수해야 할 것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한다면 '부정한 행위나 음식은 절대

로 삼가한다'는 것이다.

즉 개고기 등 추하다고 여겨지는 肉類를 먹어서는 안되며, 雜人을 만나 대화도 금하며, 대소변시 항시 목욕 재계를 해야 한다.

또한 祭官들은 이 기간 동안 喪家나 産家の 출입을 금한다.

혹 마을 부녀자 중 임신부나 産日이 祭日 무렵인 사람이 있을 때는 祭期間 동안 마을에서 떠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祭日 무렵에 喪이나 産苦가 발생하면, 祭를 포기하고 2월 초의 좋은 날로 다시 擇日해야 한다.

祭儀는 먼저 堂山 맨 꼭대기에 山神의 床을 陳設하고 再拜한다.

그런 후 마을을 위해서 소지하고 각 가정을 위한 소지의 순이 된다.

각 가정을 위한 소지를 예를 들면, 祭官들은 불을 붙여 올리면서 가정의 세대주 이름을 대며, “○○소지요”라고 외친다.

이 때 소지가 잘 오르면 한 해의 運勢가 좋고, 잘 오르지 않으며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

獻食은 祭物의 일부를 거두어 동서남북으로 짚을 놓고 그 위에 소뿔와 밥 4 그릇을 陳設하는 것이다.

祭가 끝나면 祭官들은 堂山에 남은 제물을 모두 飲福하고 음식을 마을로 가져가지 않는다.

이 점이 다른 마을의 경우와 다른데 이는 혹시 不淨한 사람이 祭物을 음복하게 되면 마을에 재앙을 입게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 安佐面 朴只마을 당지(堂祭)

매년 음력 정월 보름에 거행하는 堂祭의 方言은 '당지이다(이하 堂祭로 표기)'祭場은 박지마을 뒷산 봉우리에 위치한 3~400년생 팽나무 枯木과 그 밑의 土石祭壇이다.

팽나무가 堂神의 神體이며, 堂神은 '당할매, 할머니神'을 불리운다.

100여 평이 되는 祭場 주위에는 나무들이 울타리 역할을 한다.

祭官은 祭日 10일 前에 生氣 福德이 맞고 喪, 出産, 不淨이 없는 30세 이상의 남자 중에서 4명이 선정된다.

4명에게는 각기 역할에 따라 원당주, 부당주, 칼재 혹은 산 제비, 현관이라는 직책이 주어진다.

원당주는 祭儀를 차리고 祭를 주관하며, 부당주는 일반적인 보좌 역을, 칼재는

송아지를 잡는 역할을, 獻官은 祭儀 過程을 보좌하고 소지를 태운다.

이들 모두가 음력 정월 열 하루부터 보름까지 5일간 당샘에서 목욕 재계하는 등 온갖 정성을 다해야 한다.

祭日 前에 이들은 당앞 당샘을 깨끗이 청소하고 흰 새끼의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 雜人의 출입을 막는다.

祭饌은 메, 酒, 果, 시루떡과 소머리로 이를 마련할 때는 항시 당샘물을 사용한다.

祭饌, 祭酒는 祭日 하루 前에 마련한다.

박지마을 주민들은 堂祭를 지낼 때 평시에는 소(牛) 한 마리를 잡으며, 흉년에는 송아지를 잡기도 하고 場에서 머리만 사 오기도 한다.

박지마을 堂祭에서 소를 잡는 관습은 인근에 널리 알려져 있다.

'祭物로 쓰일 소를 구입할 때 만약 상인이 소를 팔지 않으면 당할매가 화가 나서 소를 말려 죽인다'는 말이 박지마을 堂祭에 관련된 소의 이야기로서 이 일대에서 口傳되고 있다는 정도이다.

堂祭는 정월 보름 새벽 2시부터 시작된다.

陳設, 獻酌, 再拜, 燒紙, 飲福의 順이다.

燒紙 때는 이장, 원당주, 부당주, 獻官, 칼재의 燒紙가 먼저 오르고 다음 마을 전 가구의 호별 燒紙가 오른다.

祭가 끝나면 원당주 집에서 마을 주민들이 祭饌을 음복한다.

단 음복 시에도 부정한 사람은 접근할 수 없다.

주민들은 不淨한 사람이 祭饌을 먹으면 당할매의 노여움을 받아 本人은 물론 마을 전체에 화가 미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마을에는 아직도 결궁에 다양한 雜色이 남아 있다.

팽과리, 징, 장고, 소고, 북을 든 앞치배 뒤에 鼓手, 唱夫, 탈을 쓴 비비 각시 등 雜色이 따르는 것이다.

결궁패는 원당주의 집에서부터 시작하여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대문, 마당, 부엌, 우물, 마래, 뒤꼍 등지에서 한 해의 幸運과 平安을 祈願한다.